

제주도 물 문화의 소고

- 용천수를 중심으로 -

박 원 배*

목 차

- I. 서 언
- II. 물이용과 마을형성
- III. 제주도의 물 문화
- IV. 결 언

I. 서 언

최근 삼다수는 제주도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먹는 샘물 중에서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삼다수는 제주를 대표하는 물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삼다수와 동일한 수질과 맛을 갖는 물이 제주도 마을마다 분포하고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낄 것이다. 특히, 젊은 층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지만 연세가 지극한 분들은 어릴 때 ‘용천수’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면서 그 때 물맛과 몇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물을 저 날라야 했던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움과는 또 다른 아쉬움도 토해 낼 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용천수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았던 불과 30~40여 년 전인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민의 식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활 및 농업용수로 이용되어 온 제주인 삶의 회로애락 모습을 담고 있으며 제주민을 있게 해 온 생명수이기 때문이다. 용천수의 이용역사는 곧 제주도의 물 이용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주

*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대상이다.

용천수란 땅속을 흐르던 지하수가 지층의 깨진 틈이나 열린 틈을 통해 지표면으로 자연스럽게 솟아나오는 물을 말한다. 용천수의 수온은 평균 15~17℃로 겨울철에는 따뜻하고, 여름철에는 대기 온도와 무려 15℃ 이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용천수 속에 들어가면 5분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차갑다.

제주도의 해안과 중산간 및 산악지역 등 전 지역에 약 900여개가 분포하고 있었던 용천수는 지하수 관정 개발사업으로 물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서, 제주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왔던 용천수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낮아지고,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매립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물구덕’을 비롯한 ‘물허벅’이나 ‘춤향’과 같은 단어는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특히, 제주의 물 문화에 대한 개념 설정이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더 늦기 전에 용천수와 관련 물이용 문화 등에 대해 조사·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의 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제주의 물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는 단계에서 물 문화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물 문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물이용과 마을형성

제주도의 마을 형성을 보면, 용천수가 있는 부근을 중심으로 모여 있으며, 이 마을 들은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특히, 용천수가 없는 중산간 지역에서는 하천의 물이나 고여 있는 물, 혹은 ‘춤향’이나 초가집 처마 밑에 받쳐둔 항아리의 빗물을 이용하였다. 그러다가 가뭄이 들면 수 십리의 먼길을 우마차나 ‘물허벅’으로 물을 운반해야만 하는 고통도 감내해야만 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용천수를 귀하게 여기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규율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물 문제는 1970년대까지 이어져 내려옴으로써 제주도는 물이 아주 귀중한 섬으로 인식되었으며, 물을 소중히 여기는 의식이 물이용 문화를 만들어내었다.

1. 물이용 형태와 마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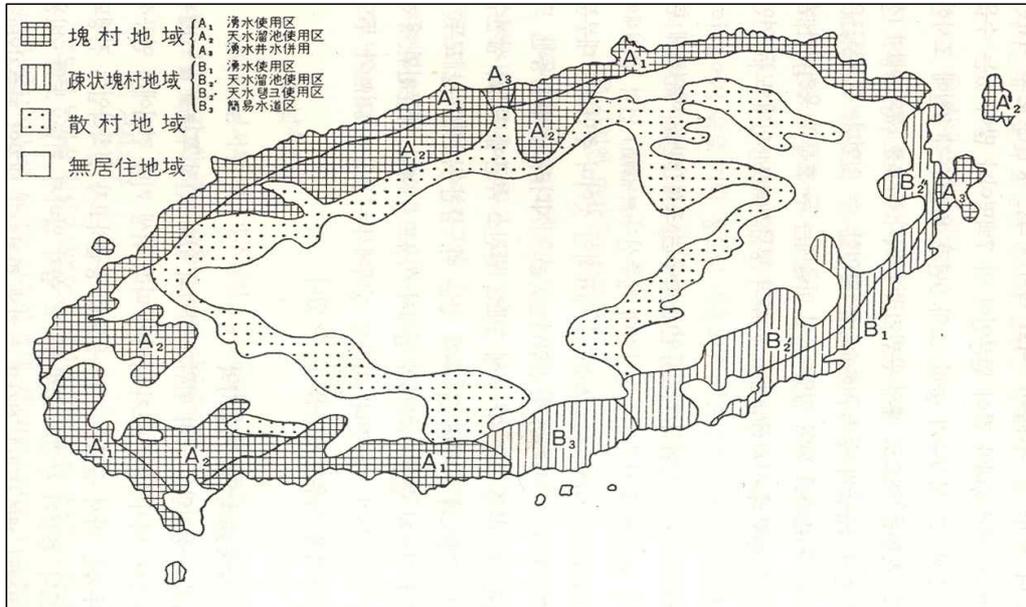
마을 분포를 결정하게 되는 제1요인으로서 고려되어 야할 바는 음료수 문제이다. 1930년대 제주도의 모습을 수록하고 있는 제주도의 지리적 연구(栴田一二)에 의하면, 제주도의 음료수 이용은 원시적 형태였으며 물 이용형태는 용천수 사용지역, 우물 사용지역, 빗물사용지역, 간이수도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홍성목역, 2005).

1) 용천수 사용지역

이 지역은 해안가에 있으며 대집단촌 지역과 일치해서 전기 70여개 취락을 포함한다. 용천이 나오는 곳은 자연 그대로여서, 아무런 인공시설도 하지 않은 곳이 많고, 취락입지의 발생적 형태(發生的 形態)가 발견된다. 대집단촌에 있어서의 용천 주위는 현무암의 돌담을 두르고 용출지점에 가까운 곳은 음료수 취수, 다음은 세척, 조금 떨어져서 하류엔 빨래터 목욕장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은 해안에 접해있기 때문에 조석간만을 계산해서 음료수의 운반과 세탁 등에 종사하며 물 때문에 활동하는 경우가 상상 이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취락발달의 핵심이 용천에 있기 때문에 용천 부근은 대개 양반, 구가(舊家)가 많고, 땅값도 용천의 거리에 반비례해서 평가된다.

2) 우물물 사용지역

우물물 사용지역은 극히 범위가 한정돼 있다. 일정(日政)통치 후 일본인의 입도자 증가에 따라 위생 기타 견지에서 인공적으로 우물을 파서 음료수 기타 용도로 공급하기 위해 굴착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용암이 두껍고 암반굴착도 쉽지 않아서 기술·노력·비용 여러 점에서 제주성내나 성산포 등지에 한정되고 일본인 거주지와 일치하는데 우물의 보급은 전도가 요원한 상태이다.



<그림> 물이용 형태에 따른 지역구분(홍성목역, 2005)

1) 성내 도청(島廳) 중심구

도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 도청구내에 2개의 우물이 있으며 제주보통학교 북동쪽과 그에 인접한 연초전매국(煙草專賣局) 제주출장소 구내의 남쪽 및 동쪽(20~1호 地內), 같은 지역 동측 등에 3개소가 있다. 기타 무선전신국 구내, 제주우편국, 그 남측의 자동차회사 등에 우물이 있어서 음료 기타 용도로 제공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여름에 고갈돼서 여전히 용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 산지천 연안구(山地川 沿岸區)

제주성내 동쪽지역에 있는데 산지천 좌안에 3개 및 서쪽 식산은행사택 구내, 남쪽의 도립병원장 관사, 우안 환상도로(環狀道路) 북쪽 등에 있는데, 우안의 용천지구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 지역은 산지천의 사행부인데 그 복류수의 침투로 우물물은 풍부하고 양질이다.

3) 남서지구

성내의 남서부 즉 제주심상고등소학교(濟州尋常高等小學校) 및 도립의원 구내에 각 한 군데 우물이 있어 사용 중이다.

4) 성산지구

제주의 동쪽 끝 성산포지역으로 일본인 30호(96명)조선인 1백 64호(7백 50명)가 살고 있는데 서귀포 다음의 도내 제3위의 내지인 다수 접거지역이다. 화산도인 성산을 연결하는 모래톱 위에 위치하나 용천은 없다. 이곳에는 옛 우물(古井)이라고 칭하는 전설의 영정(靈井)이 있어서 예전부터 주민들은 여기에 의존, 도내 최고의 우물 사용지역이 되고 있다. 1911년 이후 일본인의 증가에 따라 우물파기가 차례로 이루어져서, 일본인 개인용 우물 9, 조선인 개인용 1, 공동우물 1, 공동 세탁용 우물 1 등 합계 12개의 우물이 있다. 우물의 상층 2m는 흑색흙, 다음 층 5~6m는 황색자갈, 이어서 적색점토에 이른다. 이것이 점토대수층(粘土帶水層)인데 깊이는 7~8m, 수심이 1m을 넘는 것은 거의 없다. 이 지역에 특히 우물이 많은 것은 첫째 지질관계상 우물파기가 용이하며 노력·경비가 많이 필요치 않은데 따른 것이다.

3) 천수(天水) 사용지역

이 지역은 제2환상 취락 분포대와 대부분 일치한다. 잡용수(雜用水)는 물론 음료수도 전부 천수에 의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우수채집의 방법에 관해서는 암반의 오목한 곳(凹狀), 점토층의 오목한 곳에 담겨진 물을 이용하는 것인데 매우 원시적 자연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질·지형이 좋지 못한 지역에 있어서는 우기에 천수를 향아리에 담아 저수한다.

정의면 수산리에서는 1921년에 이미 개인용 탱크가 설치되었는데 최근에 다시 공동용 탱크를 마을 안 3개소에 마련, 각 탱크 소속자는 집집마다 수목으로부터 빗물을 모아 공동탱크에 반입, 건기의 사용에 대비하고 있다. 이들 탱크는 1930년 경 비 8백円을 공동지출 해서 1천 석들이를 만들고 이어서 1933년과 1934년에 같은 용적의 것을 1개씩 증설하였다. 그렇지만 갈수기에는 멀리 4km의 용천지대로부터 음료수를 운반한다.

4) 간이수도 지역

남제주의 중앙부 한라산 남사면에 위치한 서귀면해안에 입지하는 서귀포 및 제2환상 취락분포지대에 위치한 호근리·토평리·하효리·신호리 등 소상 집단촌을 포함한다.

1) 서귀포지구

서귀포는 섬의 최남단 용암말단 위에 있다. 제주도 최초의 수도설치구로, 도내 제 2의 일본인 다수 거주지가 되었다. 일본인 61호(2백 18명), 조선인 4백 56호(1천 6백92명) 기타 8호에 급수를 해주고 다시 춘추 우기에 집중하는 내지통어선(內地通漁船)에 급수하는 상태이다. 이 수도가 창설된 것은 1926년 5월로서 본 도 개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이고(西郷武十) 옹 등의 공적에 힘입은 바 크다.

2) 호근·서호리 지구

서귀포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두 마을 합해서 4백 40여 호, 일본인 거주자는 4호이다. 산록평탄면에 입지해 집집마다 울창한 동백나무 노수에 둘러싸여 있고 넓은 대지를 지니고 있는 표준적 소상집단촌으로 극히 부유한 경관을 보이지만 음료수는 부족하다. 수목으로 우수를 모으고 갈수기에는 동쪽 1~2km의 연외천 골짜기의 용천수 및 남쪽 약 1km의 용천수에서 물을 구한다. 그러나 앞에 말한 서귀포에 인접해 있고 일본출가 귀환자의 생활향상의 영향은 수도건설을 촉진하게 되고 공비 8천 円을 투자, 북쪽 5km, 표고 5백m의 용천에 수원을 구해서 1927년 7월에 완성을 보게 되었다.

3) 서귀면 동부지구

토평, 하효, 신호의 3개리 8백 81호를 일단으로 하는 지역인데 동백나무 노수(老樹)로 집집마다 둘러싸여 있는 소상집단촌으로 다각산업(多角産業)이 발달해 있는 모범적 산업부락이다. 종래 음료수를 토평리는 천수로, 신호리는 천수 및 효돈천의 용천수에 의존했으나 북방 표고 4백m 미악산 동쪽기슭의 용천수를 수원으로 이용할 것에 착안, 전기 두 지역의 인접자극(隣接刺戟)과 일본출가 귀환자의 촉진운동이 공을 이루어 지방민으로서는 거액인 1천 5백円을 투자 1932년에 완성을 보기에 이르렀다.

2. 제주지역에서 이용되는 용수의 형태

제주도에 있어서 이용되는 용수의 형태는 1966년 이즈미 세이에치(泉靖一)가 발간한 제주도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화구호의 물

한라산 정상에 백록담, 장울악(長兀岳)의 화구호를 비롯해서 산에는 많은 화구호가 있다. 이것들은 거의 사람에게 의해 이용되지 않고 있지만 산촌형의 방목에 의한 소·말이 때때로 이용한다. 화구호가 있는 산은 대개 울창한 숲에 덮여 있어 인간의 접근을 허용 않는다. 그러나 소·말은 덤불을 먹으면서 정상으로 올라가 눈이 쌓일 때까지 그 물을 마시며 생활한다.

2) 하천원류(源流)의 현류지대(現流地帶)에 있어서의 유수(流水)

이것도 화구호와 더불어 거주지보다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물이다. 날카로운 V자 계곡의 바닥을 흐르는 아주 청렬(淸冽)하며 양도 풍부하지만 일부의 목축우마와 여행자 및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해녀의 물맞이용 약수로 이용되는 것이 고작이다. 이지대는 도내의 심설(深雪)지대이다.

3) 하천 중류(中流)의 유수(溜水)와 용수(湧水)

현재의 부락 위치로부터 상당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해녀의 물맞이 또는 일부 방목우마에게 이용되는데 불과하다. 그 당시 이런 유수(流水)를 방죽으로 막아 커다란 유지(溜池)를 만들어 이것을 중심으로 소·말을 방목하고 있는 곳도 볼 수 있었다(연외천 중류). 이와같은 중류지대에 솟아오르는 물은 제주도에 볼 수 있을뿐 아니라 백두화산대에 있어서도 가끔 트랜스(trans)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지만 표고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4) 하천하류의 현수(現水)

제주도의 하천은 항시 그 하류에서 유수를 볼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 만큼 건천이 많다. 그러나 해안에서는 냇가의 유수(流水) 또는 용수 곁에는 반드시 가옥이 밀집하여 마을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병문천 하구의 용담리, 송천유역의 토산리, 연외천 하구의 서귀리, 청고천 하구의 화순리 하동, 도근천 하구의 내도리 등과 같

은 것들이다. 물을 이용하는 일상적인 생활은 이러한 용수부근에서 영위되지만 한번 호우가 내리면 이러한 물은 전혀 쓸 수 없을 만큼 혼탁해지고 건천에는 유수가 엄청나게 넘쳐 가까이 갈 수도 없으므로 한동안 물의 사용도 중단되고 만다. 그 때문에 예비의 용수를 발견해 둘 필요가 있다.

5) 양 · 산촌지대의 유수(溜水 · 고인물) 및 용수

제주도의 부락은 양 · 산촌에 있어서 하천을 따라 밀집하는 일이 없이 주로 소량의 물이 기암의 틈에서 새어나오는 움푹 패인 곳에 1m 사방으로부터 5m 사방쯤의 구멍을 파서 그 주위를 돌로 두르고 바닥에 현무암사를 깔 용수 또는 못을 만든다. 이런 용수를 중심으로 가옥이 모여든다. 따라서 그 수리 · 사용에는 일정한 통제를 요한다. 여기서 용수관계의 조직이 만들어진다. 감수기(減水期)에는 유수(溜水)가 말라버리는 일이 있어 용수난이 있을 즈음해서는 기우행사가 행해진다.

6) 양 · 산촌의 우물

양 · 산촌에 있어서 용수는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물웅덩이뿐만 아니라 얼마만 큼이나 지하수를 파서 이용하고 있으므로 한편으로는 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용수와 해촌의 우물과 구분해야 할 점은 산 · 양촌에선 현무암층을 뚫어 그 바닥에 있는 물을 이용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물은 구경에 비해서 심도가 얕다. 예를 들어 수기동(水基洞)의 전형적 우물인 ‘셋동물(東洞水)’은 주위 132cm 사방, 깊이 63cm이다. 한편 솟아오르는 지하수가 풍부한 마을에서는 마을사람의 각금(鑿金)에 의해 이를 수도조직으로 해서 마을의 각처에 분배하고 있다(토평리). 자연히 솟아나는 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금기가 없지만 새로 우물을 팔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금기가 지켜진다.

- 1) 마을의 남쪽에 우물을 파면 그 마을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2) 우물을 파는 날은 천기대요(天機大要)에 의해 천감일(天監日)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3) 우물을 파는 날에는 지진제(地鎮祭)를 올려라. 그렇지 않을 땐 물은 다른

마을로 도망칠 것이다.

- 4) 지진제에는 밥과 술을 우물을 팔 예정지에 올리고 밥을 술 속에 넣어 삼배 해서 경문을 낭독한다.
- 5) 역시 우물을 수리하는 경우에도 똑 같은 제사를 올려야 한다. 만일 불이행 시는 물은 다른 마을로 도망칠 것이다.

7) 해안지대의 지상용수(地上湧水)

하천의 하류에서 잠류(潛流)한 물이 여러 가지로 분산하여 복잡한 물길을 더듬어 해안지대에 솟아오르는 것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더구나 한곳에서 용출하는 양이 양·산촌에 비해 매우 많아 돌을 두르고 바닥에 모래를 까는 것은 양·산촌과 같지만 주위를 너무 널리 파서 물을 고이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물의 형태는 작다. 또 해촌의 위쪽 100m 안팎의 곳에 흔히 보이는 물은 현무암층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청정한 물이지만 다른 조건과의 관계가 있어 별로 이용 안 되는 것은 유감이다.

8) 해촌의 우물

이 종류의 우물은 깊이가 북촌리의 ‘우완물’ 같은 것은 15m나 되고 수심은 2m 안팎이다. 이런 우물은 해변에 퍼지는 수가 많으며 표층의 얽은 현무암층을 뚫어 암층 사이 틈의 지하수를 포착하는 것이다. 곳에 따라서는 만조 때 바닷물이 역류하는 곳도 있어 그 당시로서는 그다지 양질의 물을 얻을 수는 없었다.

9) 해중용수(海中湧水)

이것은 섬 독특한 용수로 산중에서 잠류한 복수(伏水)가 해중에 용출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용수라고 말하는 것이다. 해안을 작은 배로 돌아다닐 때 해면(海面)의 일부가 부풀어 오른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곳이 있다. 이것이 ‘솟는 물’인 것이다. 간조 때는 담수가 솟아오르는 곳도 종종 보인다.

이러한 용수는 전도에 걸쳐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또 이런 물만을 사용하고 있는 용담리와 같은 마을이 있는가 하면 조천리의 일부와 같이 지상수와 병용하는 곳도 있다. 해중용수 가운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간조 때 지상에 나타나지만 만조 시에는 해수로 덮여짐으로 특별한 시설이 만들어져 빨래터로 쓰이고 있다.

3. 제주도의 용수관리 문화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는 용수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의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홍성목 역, 1999)

물 길기는 여자의 대표적인 일로 남자는 결코 이에 종사하지 않는다. 물을 길는 시간은 아침과 저녁으로, 여자들은 ‘물허벅’이라는 현무토(玄武土)를 구워서 만든 물동이를 ‘물구덕(竹籠)’에 넣어 등에 십자로 교차시킨 끈으로 짊어지고 용수를 찾아가는 것이다.

용수의 관리는 그 용수를 항상 쓰는 사람들 또는 동이나 마을에서 말지만 남자들의 얘기로 방침이 결정되고 실제의 수리는 여자가 하는 것이다.

동동에는 ‘셋동물’이라는 우물이 있고 서동에는 ‘버들못(柳池)’이라는 고인 물(溜水)이 동민의 용수가 되고 있다. 물이 귀한 지대임으로 달리 물을 구할 수가 없다. 그 관리는 동(洞)마다 맡고 비용 및 노력은 각 가족의 공동부담으로 되어 있다. 각 동의 물은 그 동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의 물이 말랐을 때는 다른 동의 것도 쓸 수 있도록 한다. 그 대상(代償)으로서 상대 동이 돌담을 수리할 때는 노력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용수집단의 통제를 나타내는 예로서는 ‘셋동물’곁에 서있던 팻말을 제시한다.

飲料水給水에 對하여 비누를 타거나 양젓물을
 使用하는 사람에게는 罰金壹圓을 徵收함
 巡還番은 一日二人으로 定함

그런데 이 두 개의 용수가 함께 말라버리는 일이 몇 해에 한 번쯤은 있다. 그때는 마을에서 5km 쯤 산 쪽으로 있는 교래리에 물을 얻으러 간다. 아래쪽에도 4km 쯤에 대흘리가 있으나 그곳으로부터는 물을 얻지 않는다. 행정상 수기동은 대흘리에

속하지만 이런 관계는 행정구획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교래리로부터 물을 빌린 때의 대상(代償)은 역시 돌담을 고칠 때 노력을 지불한다.

교래리는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산촌으로, 상·하 2개 동으로 나뉘어 있고 두 동은 약 1km 떨어져 있다. 그런데 용수는 ‘뒷냇물(後川水)’ 하나로, 위치는 상동에 있으며 깊은 덩굴에 쌓여있다. 이 고인 물은 마른일이 없다고 전해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물을 아끼는 것에 대단하여 관리는 마을에 맡겨지고 매일 각 가족이 주변 청소·수리에 나서고 있다.

원리(院里)는 ‘본원물’이라는 용수(湧水)가 있어 그 사용·관리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각 가족 공동으로 하며 수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맡는다. 와산리는 동·서 2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용수는 고인 물로, ‘당샘(堂泉)’은 사람이 사용하는 유일한 고인 물로 두 동의 중간에 있으며 소·말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목책이 둘러져 있다. ‘사세미’는 소·말을 위한 웅덩이로 두 마을의 훨씬 남쪽에 있다. 관리양식은 역시 마을 전체의 공동관리로, 수리에는 마을사람 모두가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친족관계 집단이나 연자방아집단이 차례차례로 수리한다. 종종 파손되는 곳은 물 길는 장소의 돌쌓(石疊)이다. 청소 그 밖의 일상의 관리는 수기동과 마찬가지로 지이다.

대흘리는 동·서동으로 나뉘어 있지만 역시 그 중간에 ‘하늘물’, ‘본원물’의 두 웅덩이와 ‘대출물’이라는 인공유지(人工溜池)가 있다. 앞의 두 개의 웅덩이는 종종 마르므로 이 마을 출신으로 일본에 가서 출세한 김모라는 사람이 6백원을 기부해서 인공유지를 만들었다. 자연의 웅덩이는 생각이 미친 사람이 자발적으로 청소나 작은 수리를 하지만 해마다 한 번의 대수리는 구장의 지시에 의해 각 가족으로부터 1인씩 사람을 내어 실시한다. 한편 인공웅덩이 「대출물」의 수리는 역시 매해 1회, 마을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거둬 기술자에게 의뢰한다.

양·산촌의 용수는 이처럼 마을마다에 갖춰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귀중히 여겨지고 관리도 따라서 동(洞) 또는 마을 전체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 용천수 이용시설(먹는물통, 야채 등 먹을 것을 씻는 물통, 빨래하거나 떡을 가는 물통 등으로 구분하여 용천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였음)

해촌인 북촌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7개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용수(用水)는 광석동에 1개소 ‘충지’, 억수동과 해동과의 중간에 ‘산리물’과 ‘도와치물’의 합계 3개의 솟는 물(湧水)과 해동에 ‘우원물’이라고 부르는 우물이 있다. 그 가운데 ‘충지물’이 가장 좋아 마르는 일도 적기 때문에 동동·광석동·상동·홍례동·서동의 5개 동이 이것을 사용하고 ‘산리물’, ‘도와치물’의 둘은 보통 억수동 만이 사용하며, 해동은 거의 ‘우원물’을 쓴다. 이 우물은 때때로 마르므로 그런 때는 앞의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용수의 사용구분이 정해져 있긴 하나 관리는 마을 전체에 의해 행해지며 수리도 완전히 공동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용수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리의 요구는 더 많아짐으로 자발적으로 수리하는 사람도 많아진다. 그러나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마을 전체의 사활(死活) 문제가 됨으로 대규모의 수리는 마을전체에서 한다. 요컨대 수리비의 지불과 수리방법은 구장을 비롯해서 유력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 마을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북촌리 잠녀(潛女) 부인회가 1백 수십원을 각금해서 ‘충지’용수를 수리한 일이 있는데, 부인회가 마을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주목할 만 한 사건이었다.

신촌리는 5개 동으로 나뉘어 있고 동동에는 ‘감원물’ 및 ‘동물(洞水)’, 동중동에는 ‘초파물’, 상동 및 서중동에는 ‘구름물(雲水)’, 동수동(東水洞)에는 이름 없는 우물이

있다. 이 마을에는 또한 10여개의 지상용수(湧水) 및 해중용수가 있지만 그 당시 용수(用水)로서 사용되고 있던 것은 이상의 4개소 물이었다. 물이 풍부한 관계로 그 관리는 각 동에 맡겨져 있어 거의 수리비는 필요 없으며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제공함으로써 충분하다는 것이다.

화북리는 4개동으로 나뉘어 동동에는 명칭불명의 용수(湧水)가 2개소, 중동에는 3개소, 서동에는 용수(用水)가 없어 중동의 것을 사용하며 고니모을동에는 1개소가 있다. 관리는 동에 맡겨져 있지만, 마을은 향약(鄕約)에 의해 수리·청소 등에 대한 명령·독촉을 받는 수가 있다. 수리방법은 신촌리와 동일하다.

이와 같이 용수의 사용관리에 대해서는 각 마을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각 마을이 나름대로의 전통이나 환경에 따라 ‘자기의 물’을 지켜나가려는 의도는 충분히 알아차릴 수가 있다.

Ⅲ. 제주도의 물 문화

본 연구에서 물 문화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자 한다. 문화란 “지역 주민들이 물을 슬기롭게 잘 활용하거나 또는 물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긴 시간을 통해 만들어져 온 유형·무형의 문화나 전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각 지역은 각각 개성적인 물 문화를 갖고 있으며, 물 문화에는 제사나 신앙, 물방아, 제방 시설 등을 들 수 있지만 거기에 더해 물을 중심으로 한 생활 패턴이나 생활양식도 물 문화로 여길 수 있다.

물 문화는 그 지역이 갖는 자연환경이나 사회조건을 단적으로 비춰주는 거울이며, 긴 세월 속에서 터득한 생활의 지혜를 내포하고 있다. 지금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물 문화는 예부터 지역과 물과의 관련 속에서 태어났으나, 예전과 비교하면 지역의 모습이나 물의 형태가 크게 변모하고 또한 지역과 물과의 관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옛 선인들의 물 문화를 보면, 같은 물 흐름인데 윗물·아랫물·가운데 물이 있고 그 위치에 따라 수질이 달라진다면 가려 마셨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섬세한 감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물을 얻는 때와 곳에 따라 그 용도를 가리고 건강에 미치는 효과까지도 분별할 줄 알았던 우리조상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깊고 오묘한 물 문화를 누리고 발전시킨 겨레라고 하겠다. 이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조상들의 물 문화를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나라마다 물에 대한 이미지는 각양각색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홍수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세례수를, 인도사람들은 빗물을, 중국 사람들은 강물을, 유럽 사람들은 씻는 물, 한국 사람들은 먹는 물을 주고 연상한다. 우리나라는 있는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진 나라이기에 먹는 물을 연상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또 우리만큼 좋은 물을 사랑하고 감식하는 능력이 뛰어난 겨레도 없을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물 없이 삶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물 따라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며,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제주의 마을을 보면 물이름이 바로 마을이름이 되어 버린 곳도 많고, 마을마다 물 이름에 얽힌 사연도 많다. 물이 없는 하천을 끼고 살았던 제주인들에게 물은 생명 그 자체이다.

1970년 이전만 하더라도 제주도 여성의 하루는 물과 함께 새벽을 맞이하며, 물과 함께 어둠을 맞아야 했던 시절이었다. 새벽이면 물허벅을 진 여인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 집집마다 검은 지세독과 작은 항아리란 항아리엔 모두 물을 길어 두어야 했다.

제주도 중산간지역은 해안지역과는 달리 용출하는 곳이 적고 투수성이 높아 대부분의 물을 빗물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나무에 띠(새)로 엮은 새춤과 그 아래에 물을 받아두는 춤향을 준비하는 생활습관이 있다. 이것은 나무에 떨어지는 빗물을 줄기를 따라 흐르다가 띠로 집수되면서 물항아리로 들어가도록 고안된 장치로 선인들의 물을 얻기 위한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물허벅은 제주여인들의 지난 삶을 고스란히 대변한다. 타 지역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었으나, 제주에서는 대바구니에 허벅을 넣고 물배를 이용해 등짐을 져 날랐다. 허벅의 질에 따라 물 맛이 좌우되기도 했다. 물허벅은 어느 집이든 물항 결, 물팡들 위에 물배와 함께 곧 나설 듯이 놓여 있으며, 제주여인들에게 물허벅은 숙명이었다.

바람 많고 돌 많은 지역에서 물구덕과 물배를 이용해 등에 지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며, 선인들의 지혜라 할 수 있다. 마을의 공동수도가 나오는 1970년대 이전까지 물허벅은 제주여인들의 일상이었다.

또한, 물문화가 만들어 놓은 공동체 정신이 있는데, 이웃집 경조사, 집짓기 위해 흙질을 할 때, 물 한 허벅씩을 지고 가는 물 부조가 있었다. 허벅물은 바로 정과 정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했다.

맑은 물은 정화의 기능을 하는데, 정한수를 뜨기 위해선 누구보다 일찍 집을 나서, 아무도 뜨지 않은 물통에 가서 정성스레 물을 뜨기도 했고, 물은 상처를 치유하

는 약수로도 이용되었다. 제주에서의 물 문화는 곧 제주인의 삶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설화 근간에는 물의 존재가 자주 등장하고, 물의 신화와 전설 중에는 치유의 이야기가 많다. 특히, 제주도 용수 중에는 설문대할망과 관련된 용수는 용연, 지장샘, 물장을 등이 있다. 또한, 단혈에 얽힌 전설로는, 고종달이, 호종달이 이름으로 전해오는 이 단혈이 주인공으로 진시황이 내려 보낸 풍수사에 관한 설화이다. 이와 관련된 용천수로는 행기물(고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 표선면 토산리 거슴샘이, 낙단샘이 샘물, 흥리 지장세미가 있다.

그 밖에 병 치유에 관련된 설화를 갖는 용천수는 서귀포시 약천사, 한림읍 라신동 굽들애기물, 남원읍 태흥리 도내기 물통 등이 있다. 신과 관련된 용천수는 국립공원 안에 있는 물장오리, 남원읍 수망리 수영악, 남원읍 수망리, 오리수물, 표선면 성읍리 곱은소(1), 성읍리 곱은소(2), 대정읍 하모리 그신태물, 하모리 신영물 등이 있다. 장수설화와 관련된 용천수는 애월읍 고성리 장수물, 서귀포시 법환동 막숙 등 제주도 용천수에는 많은 전설·설화와 역사성 등이 많이 있다.

생활에서 전해 내려오는 속담 속에는 유난히도 물을 귀했던 제주이었기 때문에 물의 귀중함을 잘 보여주는 속담도 전승되고 있다.

- 먹는 물에 돌 데(네)끼민 저승(싱·싱)강 눈썹으로 건져 올려사 혼다
(먹는 물에 돌 던지면 저승가서는 눈썹으로 건져서 올려야 한다는 뜻)
- 늦 씻을 때 물 하영 쓰민 저승강 그 물 다 먹어사 혼다
(얼굴 씻을 때 물 많이 쓰면 저승가서 그 물을 다 먹어야 한다는 뜻).
- 먹는 물에 춤 바끄민 쥬 만나
(먹는 물에 침을 뱉으면 죄 받는다는 뜻).
- 안 먹켄 춤 바끄 우물 삼년도 안돼영 다시 먹나
(먹지 않겠다고 침까지 뱉은 우물 삼년도 안되어서 다시 먹는다는 뜻).
- 지숫물도 받아두민 도제에 쓴다
(낙숫물도 받아두면 도제에 쓴다. 가뭄이 들어 물이 더 귀하게 되면 낙숫물을 도제에 쓸 수 밖에 없다. 신도 그 사정을 이해하지 않겠는가 하는 속뜻이 들어 있다).

물과 관련된 문화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맞이”이다. 물맞이는 여름농사가 마무리되는 백중날에 이루어졌다. 수 미터 높이의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을 온 몸에 맞

으면서 한여름의 더위는 물론, 여름철 발농사로 지쳐있던 피로를 풀었다. 특히, 백중 물맞이 날에는 닭을 잡아먹는 풍습도 있다. 서귀포시 '소정방'과 돈내코'는 아직까지도 여름철 물맞이 장소로 유명하며, 제주시 도두동 '오래물', 서귀포시 고지대에 위치한 '보리또물'과 '성닐오름물'도 과거에 물맞이 장소로 이용되었다.



<사진> 용천수에서의 물맞이(좌 : 서귀포시 소정방, 우 : 서귀포시 돈내코)

용천수의 구조에 있어서도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다 용천수 흐름에 따라 4~5개로 나누어 맨 상류 쪽은 마실 수 있는 물통, 그다음은 야채 등 씻는 물통, 마지막 칸은 빨래하거나 떡을 감는 물통 등으로 구분하여 용천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다. 특히, 용천수 수량이 풍부한 지역은 여탕과 남탕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는데, 남탕은 하나의 물통으로 만들어 목욕하는 장소로만 사용하였나, 여탕은 4~5개 분류하고 들어가는 입구는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하였다. 이처럼 용천수에는 다양하고 지혜로운 물 문화가 있다.

따라서,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용천수 중 전설, 설화, 속담과 역사성 및 제주민의 삶과 함께 해 온 용수들을 재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물 문화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동시에 물 문화의 계승과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언

제주의 물 문화는 독특하고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제주의 용천수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민들의 생명수 역할은 물론이고, 제주도민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용천수는 제주 물 문화뿐만 아니라 물 이용역사라 말 할 수 있는데, 용천수와 관련된 물 문화를 살펴보면, 물을 운반하기 위한 작은 항아리인 물허벅, 강풍이 부는 날이 많고, 자갈길·비탈길 등 원거리 운반을 하기 위해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인 물구덕, 또한 물을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받아 저장하는 물항, 물구덕을 등에 지고 내릴 때 쉽게 하기 위한 물광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처럼 용천수에는 다양하고 지혜로운 물 문화가 있으며 이런 옛 어른들의 물 문화를 그대로 문혀 버리기엔 너무나 아쉽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물이용과 관련된 물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계승해 나갈수 있도록 물 문화가 제주도의 새로운 관광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한 용천수 중 역사성이나 전설·설화 등을 갖는 용천수를 선정하여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명수탐방 코스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즘 제주관광 상품 중 올레와 연결하는 방안으로 올레코스가 신설된 코스 중 스토리텔링 또는 명수인 용천수를 선정하여 홍보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때 선정된 용천수에 대해서는 원형을 보전하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용천수에 대한 현황 및 역사성, 이용내력 등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함으로써 용천수 및 물 문화에 대한 홍보와 올레 탐방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정된 용천수에 대해서, 일반 현황에서부터 역사성, 전설 또는 설화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소개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용천수 물 지킴이”이라는 호칭을 부여하여 지역 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물 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지역마다 분포하고 있는 용천수에 대한 전설, 설화, 속담 등을 수집하고 그 물을 이용했던 지역주민들로 부터, 생활사, 구체적인 축조과정 혹은 용천수 주변의 단장과정, 물 확보나 이용에 따른 특별한 사항 또는 기록 등을 찾는 작업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참고문헌

- 고기원, 2008, 해안 용천수와 제주민의 물이용 문화, 해양문화세미나, p.20~57
- 박원배, 김태윤, 고기원, 2005, 제주의 명수 이용과 보전방안(Ⅱ), 제주발전연구원
2005-4, p. 121
- 서귀포시, 1999, 서귀포시 지명 유래집, p.1~760
- 제주도, 1985, 제주도전설지
- 제주도, 1999, 제주의 물, 용천수
- 제주도, 1999, 제주도속담사전
- 제주시·제주문화원, 1996, 제주시 옛 지명, p.1~635
- 제주일보, 제주도민의 옛 생명수를 찾아(1996. 4. 8~1998. 1. 15)
- 현홍준, 1976,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 홍성목 역, 1999, 제주도, p.231~239
- 홍성목 역, 2005, 개정판, 제주도의 지리적 연구(1930년대의 지리·인구·출가상황 등)